

#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I)

## A Study on Family Life Education (I)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유 영 주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Professor : Young Ju Yoo*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오 윤 자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Doctoral Course : Yoon Ja Oh*

### — 목 차 —

#### I. 서 론

1. 가족과 가족생활교육
2.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
3. 가족생활교육의 목적

#### II. 가족생활교육의 정의

#### III. 가족생활교육의 범위

1. 방법적 분류
2. 내용적 분류

#### IV. 가족생활교육의 접근법

1. 생태학적 접근법(Ecosystem Approach)
2. 체계론적 접근법(Hynson의 Systems Approach)

#### 3. 원리적 접근법(Principles Approach)

#### 4. 콜버그의 도덕성발달 접근법(Kohlberg's Moral Development Approach)

#### 5. 평생발달적 접근법(Life-span Approach)

#### V. 현대한국사회에서의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

-부부교육을 중심으로-

#### V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 ABSTRACT =

Family Life Education(FLE) is an educational specialty which was originated in reaction to changing social conditions,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t deals with the perceived inadequacies of families to cope with these changes, thereby reducing social problems involved with, and improving family life.

With an assumption that the studies about FLE have not been so active in Korea, the present thesis examines the FLE in Korea : i.e., the definition, the objectives, the scope,

the approximation of family life education, and the necessity of marital education in Korea based upon the published theories of FL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lso, it attempts to formulate a tentative plan for the promotion of a FLE program in Korea.

The concept of FLE in Korea was manifested in the social educational law and life-span education, specified as the 4th among ten presidential regulations; and it has drawn an institutional, governmental attention. It is defined as "the life-span developmental education to enhance the quality of human life, to solve family problems, to develop an individual's potentiality, and to strengthen the family correlations."

Of the FLE programs, the marital education is considered one of the crucial subjects because it is the core of the family life. With this premise, FLE tries to support the healthy marital relations, subsequently helping to explore the family potentiality and to strengthen family ties. Considering the seemingly du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family types, the contents of marital education program should be consisted of the following: marital communication, role cooperation, and effective expressions of mutual affection. In addition, reciproc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of the married couples to overcome the differences of value, personality, hobby, and religion, the educational methods in raising kids, and the effective management of home economics should be included.

The objects of the FLE program are unmarried, pre-married, and married persons. For the married persons, the FLE program should be arranged in accordance with their marital status divided by the family life cycle so that they may prevent possible family problems at each stage of the family life. Also, to prevent the problems incurred in the course of carrying out family functions, the FLE program should be provided with on the basis of a family unit, thereby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family functions.

## I. 서 론

### 1. 가족과 가족생활 교육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소멸되어 가는 제도라기 보다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가족구성원의 정서적 만족을 충족시켜야 하는 기능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그 중요성은 점점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0). 또한 가족의 교육자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가족의 개념은 더욱 가족생활교육의 초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Darling(1980)의 연구에서 보면, 가족이 모든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주요한 교육자로서 간주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생활의

기본적 과업이나 인간관계 등의 근본적인 교육을 가족안에서 습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가족환경은 사랑이나 분노의 교환 등 일생 동안 모든 인간 경험에 있어서의 친밀감의 능력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가족과 그들 육구의 중요성은 가족생활교육의 당위적인 필요성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교육의 결정적 대행자로서의 가족역할은 종종 간과되어 왔다.

사회가 가족의 사회화와 교육기능의 일부를 떠맡고 교육과정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듯 하므로 가족생활교육을 통하여 가정의 교육적 잠재력을 보다 명확히 깨닫게 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화와 교육 둘다의 환경으로서의 가족에 대한 광범위한 시각을 갖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가족환경은 그 구성원들이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기본적인 생활과제를 배우는 주요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가족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 자원들을 분담하여 사용하는데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투자된다. 인적자원이란 한 개인이 그의 변화하는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속성들을 말한다. 이들 속성들이 전부 합쳐짐으로써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 과정이 형성된다.

가족연구들은 이러한 가족환경 속에서 가족문제나 병리적인 것에 치중하여 가족을 무기력한 위치에 놓기도 하지만, 대신 이런 견해는 가족이 그 생활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도 한다. 몇몇 프로그램은 교육자로서의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가족생활교육은 가족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가족생활 촉진자가 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생활교육의 처음 발생은 미국에서 공업화, 도시화 등의 사회 변화와 이에 대처함에 있어서의 가족의 부적합성 때문에 1900년경에 발생하였다. 가족생활을 향상시키며 따라서 가족과 관계된 사회문제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족생활교육이 하도록 하였다(Arcus, 1990).

본고에서는 가족생활교육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시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

Otto(1971)는 가족에 대해 상당한 무관심이 만연해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 오랫동안 우리는 가족이 산업화와 도시화가 초래한 사회내의 빠른 변화에 대처할 수 있으며, 대처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급속하게 변모하는 사회에 대처할 수 없게 된 수많은 가족의 긴장감과 불안정함의 증거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구조와 기능에서의 변화를 초래한 현대 가족제도라고 볼 수 있는 핵가족화에 따라서 새롭게 대두되는 가족문제의 내용들은 대체로 부부의 불안정 문제, 자녀의 가정교육 기능의 약화, 노인문제,

부모로부터 전수되던 지식과 문화적 전통의 단절, 부모세대의 고립 등으로 중요한 사회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심지어는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분열을 가져오고 가족원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이혼율도 해마다 10~15%씩 증가되어 결혼가정을 초래, 또한 전체인구의 노령화 추세 현상에 따른 젊은세대와 노년세대 모두에게 새로운 변화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재사회화 교육의 필요성등의 유사한 내용들이 많은 논문에서 다루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부상담 및 치료, 가족상담 및 치료 등의 사후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의 준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김혜석, 1990).

가족문제 발생은 사회적 가치판단의 변화에서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의 변화는 현재의 가족생활에 대한 교육을 절실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과 현격한 인간수명의 연장으로 인간발달단계로의 관심이 가족생활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가족생활 교육에 있어서, 교육은 하나의 사회 현상이며 따라서 그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교육의 주기능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가 처한 사회, 문화적 환경의 적응, 생활에 필요한 생활양식이나 기술의 습득, 나아가서는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궁극적 목적을 둔다면, 교육을 일정기간의 학교교육에만 의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현대산업사회 도래 이후, 물질주의, 인간의 획일화, 인간성 상실이라는 커다란 문제에 봉착되어 새로운 가치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다(최진복, 1987).

그러므로, 가족생활교육은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학교교육에서 뿐 아니라 인간발달단계와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교육이 계획적이고 실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결혼 및 가족문제 전문가들의 연구는 지금까지 교육, 상담, 연구의 3가지 분야로 구분되어 왔다. 연구는 가족이 어떻게 기능하는가와 가족의 전문적 부분을 검토해 봄으로써 지식의 확장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고, 교육은 가족을 훈련시키는 부분으로서 필요로 하는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전달하는 작업이며, 상담은 주로 기능 장애를 보이는 결혼생활이나 가족단위를 돕기 위하여 지식을 사용하는 과정이다. 연구는 지지체계와 연결될 수 있으며, 교육 및 상담은 가족에게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Mace, 1979).

Jorgensen(1986)은,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의미나 결혼의 실체도 모르는 채 결혼하여 가족생활을 시작한다고 언급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고, 50년 혹은 그 이상 기간동안 지속되는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해 책임감있게 준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 대부분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요 원천이 부모, 영화배우, 친구 등의 관찰에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더우기 성공적인 결혼 및 가족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미국에서의 많은 대학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 가족의 역할과 문제의 특성, 가족관계, 자녀양육, 가정경제관리, 미래를 위한 계획 등에 대해 적절하고, 시대 감각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전공 영역에 대한 교육은 4~8년간이나 받으면서, 가족생활을 위한 교육은 단지 몇 시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결혼과 가족생활을 위한 교육이 모든 가족생활에서 발생하는 제문제를 전체적으로 방지하거나 제거시킬 수는 없지만,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하여 예비지식이나 사전교육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태도에 대해 다룬 연구는 몇 편이 되나, 결혼에 대한 지식이나 구체적인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Stinnett는 성별에 따라서 결혼의 목적, 행복한 결혼생활의 특성들, 결혼지각(perception)에 대한 영향의 원천, 결혼에 대하여 원하는

정보의 주제 등에서 크게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Epstein & Eidelson(1981)은 불행한 부부들은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를 가지고 있어 결혼만족을 증가시킬 기회를 해친다고 하였으며, 또한 가족생활교육을 위한 일환으로 The Marriage quiz에서(가족생활교육이 영향변인), 대학수준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과목을 수강한 사실은, 가족과 결혼의 역동력에 대한 지식과 이해 및 대인적 관계기술을 돕고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준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Larson, 1988).

결과적으로, 급속히 변화되는 사회속에서 첫째로는 가족의 기능이 많이 이관되었다고는 하나, 이러한 이관된 기능을 대행할만한 기관이 너무나 빈약한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또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의 건전함(건강)이 곧바로 사회의 건전함으로 연결되므로 무수히 발생되고 있는 가족 문제에 대하여 미연의 방지 내지는 예방차원에서 의 가족생활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가족의 문제발생 소지나 나타난 가족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 3. 가족생활교육의 목적

가족 및 가족생활교육에 관한 관심은 지난 수세기 동안 다각도로 폭넓게 있어왔는데, 그러한 관심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이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동안 전개되어 왔다.

물질문명의 발달, 소비위주의 생활상, 핵가족화 경향, 기계화로 인한 비인간화성향 등이 파생되어 필연적으로 인간소외와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켜, 기존의 위치에서 가족을 밀어내게 만들었다(김재인, 1987).

또한 Skinner(1980)는 제반 가정생활의 구조적인 변동과 가족관계의 변화가 수반되어 그 가족내에 상당한 스트레스의 긴장이 항상 내재되어 가족관계에서 여러가지 갈등과 적응문제를 내포한다고 하였다.

Harrington(1984)은 이혼자들을 대상으로 이혼 발생원인을 연구한 결과,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이해부족, 사랑·헌신·결혼에 대한 이해 부족, 자신과 배우자의 가치체계에 대한 이해부족, 명백한 의사소통의 필요, 성과 성욕, 경제문제, 신앙적 이해부족, 비현실적인 기대, 역할과 역할수행의 혼란이 가장 자주 고통스러운 영역으로 지적되었다(김혜석, 1990, 재인용).

또다른 문제로 송성자(1987)는 자녀양육 및 부부취업 등에 의해서 비롯되는 사회제도의 가정에 대한 공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런 반면 가족해체 현상이 증가하고 청소년 문제와 기타 다른 가족문제와 같은 중요한 사회문제가 증가하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가족기능의 변화와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문제의 증가현상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사회의 어떠한 전문기능집단이 가족의 정서적 지지기능과 사회화교육기능을 대신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정서적 심리적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의 결과나 제언이 당면한 가족문제의 형태 및 심각성을 파악하게 해주며, 심도있는 가족생활교육이 행해질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것이다.

1970년 National Commission of Family Life Education에서는, 가족생활교육의 목적에 대해, 개인과 가족의 상호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들의 질적인 삶을 개선시킬 잠재력을 일깨워주도록 인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학자의 연구에 기초한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자료의 발달 뿐 아니라, 학교나 교회, 기타 사회제도기관에서의 가족생활프로그램 발달이 시급하다고 제시하였다.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NCFR)에서의 가족생활프로그램은, 성교육을 포함시켜, 학령기 이전 부터 대학까지의 정규 교과과정에 가족생활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하여 가족생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평생 교육의 전제가 추가되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L'Abate(1978)는 가족생활교육이란 가족이 어떻게 학습해야 하며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현학적인 측면들을 어떤 방법으로 강조할 것인가에 관한 정보를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시하였

다.

Arcus(1990)는 가족생활교육의 목적을, 개인과 가족으로 하여금 현재와 미래의 가족원으로서의 능력을 계발, 가족생활에 대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문제가 계속 주목을 끌게 되면서 가족생활교육의 목적은 근본적으로는 가족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교육 이상의 것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은 가족생활에 관하여 학습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은 가족생활에 대하여 학습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가족생활교육을 통하여서 가족생활을 향상시키며, 따라서 가족과 관계된 사회문제를 감소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 II. 가족생활교육의 정의

그동안 가족생활교육은 학교교육기관외의 많은 단체나 기관에서 평생교육이나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교양교육부문에서 미소하게 다뤄져 왔고, 그것 조차 실시기관 또는 실시자 중심의 가족생활교육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구체적이고도 진정한 의미의 가족생활교육은 미처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족생활교육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되었음은 이미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가족제도나 가족구조는 미국의 그것들과 많은 차이가 있으나,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가족생활교육이 정규학교교육에서 부터 시작되어 민간단체, 지역사회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의 가족생활교육이란 많은 가족교육프로그램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 가족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은 Family Growth Group (Anderson, 1974 ; Papp, 1972), Family Cluster Education(Sawin, 1972 ; Otto, 1971b, 1972), Family Enrichment(Clake, 1970 ; Kreml, 1970),

Therapeutic Family Camping(Clart and Kempler, 1972) 등이 있어 왔다. 또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은 Family Facilitation을 위한 4가지의 접근법-Family Life Education, Behavior Modification, Family Therapy, Family Enrichment-중의 하나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가족생활교육의 개념은, 사회교육법(1982. 12. 31) 제2조에서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고, 이어서 동법시행령(대통령령 11230호, 1983. 9. 10 공포)에서 사회교육의 영역 10개 중 4번째로 명시된 것에서 제도적으로 국가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교육법에서 사회교육의 정의를 “다른 법률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사회교육법시행령의 제2조 사회교육 10개 영역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교양교육, 직업 기술 및 전문교육, 건강 및 보건교육, 가족생활교육, 지역 사회교육 및 새마을교육, 여가교육, 국제이해교육, 국민독서교육, 전통문화이해교육, 기타 학교교육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되어 있다.

가족생활교육은 그 자체가 다차원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이를 정의하기는 어렵고 때로 제한적이다.

Avery & Lee(1964)에 의하면, 가족생활교육이란 교사가 학생의 현재와 미래의 능력에 따른 성격을 발달시키도록 신중히, 의식적으로 도와주는 여하한 모든 학교 경험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능력이라 함은 한 개인이 자신의 가족역할에 적절하게 문제를 가장 건설적으로 해결하게끔 해주는 것이다.

Kerckhoff(1964)는 가족생활교육이란, 교제, 결혼, 부모됨 및 더 새로운 가치개념과 관계, 사실(fact), 태도, 기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기에 homemaking교육, 부모교육, 가족사회학, 성교육 등이 해당된다고 하였다. ‘관계’는 즉 부모-자녀, 남-녀관계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개인의 발

달은 가족생활교육의 초점이 되는 또다른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Frasier(1967)는 가족생활교육이란 대상이 누구이며, 어떠한 발달단계와 어떠한 맥락에서 발생되었는 지에 관한 설명 없이는 의미 있는 정의를 내릴 수 없으며, 정의가 단지 내용에 관한 경계를 한정짓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이 교육에서 요구되는 지식, 평가, 기술, 능력을 특정지워야 한다고 했다.

National Commission(1968)에서의 가족생활교육이란, 매우 새롭고 특수하며 다학문적인 연구분야로서, 점차 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그 나름의 철학과 내용·방법론을 직접적인 가족과의 경험과 주변학문인 가정학·사회사업·법학·심리학·사회학·경제학·생물학·체육학·종교·인류학·철학·의학 분야와의 합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속한 많은 전문분야에는 인간상호관계, 자아이해, 인간발달과 성장, 결혼과 부모됨의 준비, 육아, 사회화, 의사결정, 성, 자원관리, 사적 가족적 지역적인 건강, 가족-지역사회의 상호작용, 문화유형에 미치는 변화의 효과 등이 있다.

Kennedy(1972)는 가족생활교육이란, 가족이 가족생활의 질 측면에서 극대화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라는 가정(assumption)에서 출발, 그러므로 가족생활교육은 가족원들이 그들 가족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나아가 가족원으로서 그들 능력의 최상의 개발 및 잠재력을 이룰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자원, 정보, 기술을 가족에게 지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Cromwell and Thomas(1976)는 가족생활교육은, 가족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별적 가족단위에 가족발달자원들의 전달, 협조, 통합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족생활교육이란 전체 가족단위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가족발달 및 예방을 촉진하는데 있으므로 치료적 또는 교정적인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Arcus(1990)는 가족생활교육이란, 가족생활에 관련된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지식습득, 개인적인

태도, 가치를 개발하고 타인의 가치와 태도를 이해 수용하며, 가족복지에 기여하는 대인간의 기술연마라고 정의하였다.

가족생활교육은 가족생활에 변화를 야기시키고 자하는 개입이 의도되고 있고(Avery & Lee, 1964; Guerny & Guerny, 1981; Hof & Miller, 1981; L'Abate & Rupp, 1991; Mace, 1981), 역기능적이며 문제성있고 혼란된 행동에 변화를 강조하기 보다는, 부가적인 정보, 지지, 기술을 가지고자 원하는 기본적으로 잘 기능하는 개개인과 가족을 위해 고안되었다(Fisher & Kerckhoff, 1981; Guerny & Guerny, 1981; Mace & Mace, 1976; Otto, 1976; Powell & Wampler, 1982)

이상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가족생활교육의 목적, 범위, 내용을 포함하는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즉 가족생활교육이란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가족생활을 강화시키는 평생발달적 교육이다.

### III. 가족생활교육의 범위

가족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적 노력이 다양한 목적, 후원단체, 목표집단, 주제, 교육적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몇 정확한 문제와 혼란이 실제로 가족생활교육 구성에 존재하고 있다.

가족생활교육의 관심사가 시대에 따라 변화 되었는데, 1960년대 주요문제가 가족생활교육을 정의하는 것이었고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에는 공공정책에 관한 관심이 증가, 특히 성교육에 관련된 것이었고, 1970년대 중반의 연구는 프로그램 평가와 개념틀의 사용에 대한 강조였다. 1970년대 후반에는 부모교육과 marriage and family enrichment였다.

평생발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가족생활교육의 범위는 교육방법적 측면과 교육내용적 측면으로 각각 분류할 수가 있다.

#### 1. 가족생활교육의 방법적 분류

##### 1) 형식적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학교교육을 통해 설립된 것으로 보다 인습적인 방법으로 가족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Mason (1974)은 1973년 캔터기주 187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교육을 통한 형식적인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학교중 80%가 가족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대부분의 교과과정은 가정학을 통해 제공되고 있고, 이밖에 사회학, 건강과 안정, 종교, 심리학, 체육, 생물학 분야를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다.
- 가족생활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의 약 1/2은 전학기 교과과정을 통해 이를 제공, 나머지 1/2은 일부 교과과정에서만 제공하고 있다.
- 가족생활은 교과과정(교과편성단위)에 있어서 가장 대중적인 제목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교과과정은 선택과목이며, 주당 5시간씩 할당하고 있다.
- 내용의 시간 할애 정도를 보면, 가정경제(돈 관리), 아동, 데이팅, 구혼·결혼을 위한 준비의 순서이다.
- 가족생활교육의 교과과정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 96%, 부모 92%, 지역사회 80%, 정부 81%로 나타났다.

##### 2) 비형식적(nonformal)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학교가 아닌 다른 비형식적 환경들을 통해 가족생활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①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CES: 정부·대학 협동 교육 서비스): 세계에서 가장 큰 비형식적 교육조직으로 인간의 발달과 삶의 향상에 기여하였다. 가족생활교육은 CES중에서 가장 주요한 구성요소이고 비형식적 토론, 지지집단, 공

동연구회, 대중매체기술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강의 방법을 이용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된다. 1980년대 관심 사항은 가족의 복지에 미치는 공공정책, 공동사회제도, 공공사업 등의 영향 및 가족이 이런 영향을 조정하기 위해 할 수 있는것, 가족의 건전성(strength)을 강조하는 가족에게의 권한 부여, 스트레스 해소, 부모 교육 등이다.

② 종교단체의 교육 서비스 :

특히 교회가 관계해 온 사회제도로서, 교회가 주로 관여한 주요한 부분들은 결혼준비교육(pre-marriage education)·신혼부부의 교육·marital enrichment, postmarriage education을 포함하는 결혼교육, 가족 향상(family enrichment), 가족생활주기 문제, 성문제 등이다.

③ 지역사회에서의 교육 서비스 :

상담, 소개, 호소 등이 있다.

3) 비형식적 프로그램의 3가지 방식

비형식적 프로그램들은 무한정적인 방법으로 재량껏 실시하고 있는 형편인 바, 융통성 있는 방법으로 3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집단방식(Mass mode)으로 학습자와 교육자간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일반 대중을 언급하는 제가족생활활동을 포함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인쇄물(책, 팜플렛, 잡지, 신문), 시청각자료(필름, 비데오테이프), 대중매체(T.V., Radio), 강의, 컴퓨터를 통한 기술적 도구 등이 있다. 두번째는 그룹방식(Group mode)으로 가족생활교육에의 참여를 목적으로 구성된 집단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집단토의·치료·응답·질의 등의 형태로 이뤄지는 방법이다. 세번째는 개인적 방식(Individual mode)으로서 개별적으로 주로 상담과 지도를 맡아서 한다.

가족생활교육은 가족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하에 가족의 체계적인 변화를 효과적으로 가지는 데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장 적절한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개개 상황과 특성, 요구 등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가족생활교육에 포함되는 학문이나 전문분야에 경계는 없으며, 개인들이 가족단위를 포함

시키지 않는다하여 개인을 프로그램에서 배제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주기상 어느 위치에서의 개인·가족도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유익을 얻을 수가 있고, 프로그램 내용 역시 전문분야 연구의 주제를 넓고 깊게 접근할 수가 있다

2. 가족생활교육의 내용적 분류

가족생활교육의 분류에 관한 이슈를 다루면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지금까지 다루어 온 전통적인 주제영역(대인관계기술, 의사결정기술, 가족 상호작용, 자녀양육 및 지도, 가족자원관리, 결혼에 관한 것, 가족원의 역할 및 책임등)에 첨가된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제영역을 살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Harriman(1986)은 중등학교·초등학교 교사들과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에 아동발달 및 가족관계 분야에 있는 미국 전역의 1709 명을 대상으로 하여, 1970년을 전후하여 가족생활교육 교과서, 교육과정 자료, 기타 문헌고찰을 통해 창출된 120가지의 주요 개념중 전통적인 것과 부상하고 있는 개념에 대한 중요도 및 이러한 개념을 강의하는데 적절한 자격정도를 기입하도록 요구하였다. 그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강의하는 주제로서 전통적인 개념들은 부상하고 있는 개념보다도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중요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한편 응답자들이 부상하고 있는 개념들 중 중요하게 평가했던 주제는 부모됨, 성교육에 관한 영역, 변화하는 가족생활양식 및 구조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통적인 개념에 대한 평가에서는 대인관계기술, 의사결정기술, 아동지도기술, 가족자원관리와 같은 보편적인 기술영역들이 제시되었다. 전통적인 개념 중 이러한 기술 영역은 부상하는 가족상황과 위기 등의 새로운 개념이 포함된 이슈를 다루는데 유용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

가족생활교육의 내용상 범위를 살펴보면, 성교육,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등이 있다. 가족생활교육은 아주 많은 세부적인 주제를 포함



시키고 있으나 특히 성교육은 고조된 관심을 지속시켜 온 주제이고, 부모교육은 새로운 것은 아니나, 그들이 역할에서 부모의 능력과 자긍심에 관심을 갖는데 이것은 근래 관심을 많이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10대 임신·학대, 부모-자녀 의사소통 같은 문제들은 부모로 하여금 상실된 가족생활의 균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해 왔다.

#### IV. 가족생활교육의 접근법

많은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 중 하나가, 가족행동 연구에 개념틀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론적이면서 실증적인 기초자료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Wright & L'Abate, 1977). 최근에는 가족과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틀이 없이는 가족생활교육의 여러 의미있는 통찰력과 장기간의 목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Darling, 1987).

과거에는 많은 개념틀이 서로 상이한 정도로 가족생활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왔다. Duvall(1971) 등의 발달론적인 접근이 수년 간 우세해 왔으나 상호작용적, 구조기능적, 교환적, 체계적 접근법 등 역시 시행되어 왔다.

본 고에서는 그 동안 발표되어 온 가족생활교육을 위한 개념틀로서 다음과 같은 접근법들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자 한다. Carol A. Darling(1987)의 Ecosystem Approach, Lawrence M. Hynson(1979)의 Systems Approach, M.R. Jensen & L.G. Brady(1977)의 Principles Approach, Margaret Arcus(1987)의 Life-span Family Life Education, C.L. Englund(1980)의 Kohlberg's Moral developmental Family Life Education의 5가지 개념틀에 대해 문헌 검토를 통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가족생활교육 개념틀을 구축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1. 생태학적 접근법(Ecosystem Approach)

이 접근법은 서로 다른 차원의 견해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즉 사회학적인 개념은 가족을 역할과 규범의 constellation을 강조하며, 발달론적인 견해는 전생애를 통한 변화하는 가족속성을 강조하고, 사회-교환론적인 견해는 가족을 비용의 최소화와 보상의 극대화 시키는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한다. 한편, 사건과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전체주의적 관점에서 이 생태계 접근법은 가족이 생활의 질을 극대화시키고자 시도하는 기간 동안 변화하는 일련의 상호관련된 역할로서 가족개념을 병합시킴으로 통합을 꾀하고 있다(Andrews, 1977; Melson, 1980; Darling, 1987, 재인용). 이 접근법은, 다차원적 연구가 성취될 수 있고, 다양한 이론들과 접근들이 조화될 수 있는 개념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일반체계이론과 사회체계접근(social system approach)으로 부터 발달되어 온 것이다. 또한 생태학적 접근은 유기체(organism)의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인 측면, 환경관계, 사회심리학적 속성과 상호작용, 가족과 환경의 상호교류(transactions) 등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Andrews, Bubolz & Paolucci, 1980; Darling, 1987 재인용).

가족 생태계 모델의 구성요소 :

가족은 공동목표와 자원을 가지고 생애주기의 일부 동안 주거공간을 공유하며 상호작용하고, 상호의존하는 사람들의 유대있는 집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Andrews, et al. 1980; Hook & Paloucci, 1970). 가족학 영역에서 가족 혹은 친족집단을 중심 초점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가족은 가족생태학적 접근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심의 중심으로 간주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생태학적 모델은 3가지 주요 요소-조직(organism or environed unit), 그것의 환경, 그들간의 상호작용 및 상호교류(transactions)-로 구성되어 왔다.

• 조직 : Environed unit는 광범위한 친족유대망 혹은 핵가족내의 하위체계로서 개념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가족은 여러 형태의 가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은 개개의 구성원의 성격과는 다른 공동정체감을 지니고 상호의존적이면서 독립적인 개인들의 집합체로 개념화된다. 가족이 정서적·물질적·사회적으로 상호의존적

인 개인들의 집단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간주될 때, 초점은 그 집단 또는 개인의 속성 보다는 가족성원간의 관계에 두고 있다.

• 환경 : 환경적 구성요소는 가족내·외적 환경의 자연적, 인간-행위적, 인간-구조적인 구성요소들의 복합적인 통합을 이루고 있다. 또한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둘러싼 단위를 에워싸고 있는 규제체계(regulatory systems), 천연자원, 에너지공급의 결합에 있다. 그러므로, 주요 관심의 유기체는 가족이 되고, 주변적 요소들은 가족환경으로 간주된다. 가족환경의 중심구성요소 3가지로 자연환경(시간과 공간의 맥락내에서 생존에 기본적인 자원 제공), 인위적환경(물리적·생물학적 환경을 수정하고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경을 포함, 인위적 환경은 자연환경의 제약을 받기 쉽고 자연요소에 대해 방어적), 인간행위적 환경(정서·감정·사회적 유형들·가족원이 사회화되고 양육되는 환경이므로 중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약, 종교, 교육, 경제, 정치, 법적 체계를 포함하는 규제체계는 가족과 사회적·물리적 환경간의 에너지교환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발되어 왔고, 그외의 규제체계들은 상호작용 뿐 아니라 광역자연 환경과도 상호작용한다.

• 상호작용 : 유기체와 환경간의 상호작용으로 상호호혜적 거래는 가족생존과 목표달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에너지 변환에 본질적이다. 이 상호작용은 유기체내에서, 환경내의 구성요소들간에, 환경들간에, 유기체와 하나 이상의 환경가나에 일어날 수 있으며, 이 상호작용들은 동시적이고 상호의존적으로 발생한다. 가족과 환경간의 상호거래의 개념에서 시사되는 것은 경계의 존재로 가족단위 또한 개방적에서 폐쇄적에 이르는, 연속선상의 범위를 갖는 침투적 경계를 확립함으로써 자신과 외적 환경으로 부터 구획을 짓는다(Kantor & Lehr, 1975; Darling, 1987, 재인용).

많은 연구들이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체계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생태학적 접근법은 상호의존성을 더욱 인식하게 한다.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가정폭력, 10대 임신,

경제적 압력 등-의 상호 관련성을 검토해 보면, 이 문제들이 단 하나의 개념틀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비록 여러 연구들이 학제적 접근을 지지하지만, 고유한 학문의 유리한 위치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진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키는데 있어서 학제적 접근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생태학적 접근이 가족생활의 지속적인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보다 효과적인 수단을 확립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태학적 접근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잇점이 있다.

① 학문연구접근과 환경 체계간의 공통경계를 명확히 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적인 과정과 정보교환에 관련되어서 이론적 모델들이 통합될 수 있고

② 다양한 개념적 접근들(발달론적, 교환론적, 구조-기능론적, 상징적 상호작용적, 위기, 역할이론)은 가족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통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접근은 가족연구영역에 쉽게 동화될 수 있는 연구 조사와 지식의 실체를 표현할 수 있으며,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가족연구의 다양성은 보다 큰 종합과 이해로 나갈 수 있다.

가족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원인-결과 관계를 사용하는 대신, 생태학적 접근은 내적 가족과정 뿐 아니라 다수의 환경적 요인들과 가족과 가족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검토하게 된다.

이 접근법은 상호연결된 전체로서의 실재(reality)에 대한 견해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가족생활교육자가 dual-career가족에 초점을 둘 경우 여러 가지 개념틀이 통합될 수 있다. 즉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환들, 협동과 타협속의 상호작용 과정들, 전생애 발달과업과 일의 체계와의 연결 등이다. 가족생태학적 접근법을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가족생활교육자를 위한 개념틀이 부족한 문제는 완화시킬 수 있으나, 교육적 과정에 있어서 가족역할의 제한된 견해라는 문제는 계속 남아 있다.

## 2. 체계적 접근법(Lawrence M. Hynson의 Systems Approach)

이 체계적 접근법은 구조-기능론적인 개념들 맥락에서 외적 내적 가족체계인 현대 사회의 중심이 되는 문제들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이론들이라고 보고 있다. 백악관 가족회의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Tulsa주에서 가족에 대한 시민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즉 이는 비조직화된 가족생활의 증거로서 부정적이고 불행한 가족생활이 정신건강문제, 청소년 범죄, 이혼의 증가, 결혼불행감 등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가족회의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 반대의 상황인, 즉 요구가 성취되고 양친이 함께 사는 어린이들이 인정받고, 성숙하고 책임있는 성인들이 존재하는 건전가족의 요구를 가지게 되었다(Stinnett & Sander, 1977) 그러므로 이 회의를 거치면서 가족의 체계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모델은, 가족육구와 문제해결전략에 통찰력을 가지게 하며 가족생활은 변화하는 반면, 지역사회는 이를 강화시키고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모색한다.

## 3. 원리 접근법(Principles Approach)

원리 접근법이 출현하게 된 중요한 근거는 연구와 실행을 연결하는 방법론의 진보에 있으며, 이 원리 접근법의 발달을 가능케한 배경에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우선적인 강조점을 두어왔던 기초연구로부터의 이동에 있다. 즉 1960년대 까지 기초연구에 가장 우선적인 강조점을 두어왔던 사회과학이 그 이후로 관심을 현재 사회적 문제의 극복을 위해, 또한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사회과학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두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강조점의 이동은, 가족생활교육에 주어진 관심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고 원리접근법의 발달을 가능하도록 유도하였다.

가족생활교육에 있어서, 이 접근법은 3가지 학습목표(교육과정)를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인 원리들을 학습하기 위한 것, 개인의 개별적 생활에 특수한 상황과 일반화를 지적으로 연결시키는 방

법을 학습하기 위한 것, 이러한 원리에 조작적인 또는 변화하는 수준의 변수에 대한 개인의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 원리의 특성은

(1) 하나의 원리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인, 요소들을 수반하고 있다. 원리의 예로 변인들은, 역할기대에 대한 일치 정도, 부부간의 만족가능성(일치의 원리: consensus principle), 고려되는 대안의 수, 결정의 질(대안의 원리: alternative principle)이 되며, 하나의 변인은 다양한 변인, 개념, thing을 포함하고 있다.

(2) 하나의 원리는 어떻게 두 변인들이 관련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수반하고 있다. 정적인 직선관계(예: 역할기대에 관한 일치의 증가는 부부간의 만족의 기회증가를 병행하는 관계)와 곡선관계(예: 어느 정도의 수치에 이르기까지는 추가된 대안책들이 의사결정의 질을 증가시키나, 그 이상의 추가는, 결정의 질을 감소시킨다)로 설명하고 있다.

(3) 하나의 원리가 법률과 같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설명은 정규성(regularity)에 관한 것으로 원인과 결과에 상술 또는 항상 발생하는 경향인 공분산은 단지 한번 또는 때때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규적으로 발생하는 규칙이 있다.

(4) 일반적 원리는 광범위하고 특별한 상황에 적절하기 위해 충분히 일반적이며 이론적인데, 이는 일반적 원리에는 특별한 것 보다는 일반적인 개념의 변수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의사결정의 질은 휴가나 어떤 종류의 음식물을 구매할 것인가 또는 인척과의 관계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에 보편적으로 충분히 적절하다.

(5) 원리들은 여기에 특별히 규명된 제한성이 없다면, 어떠한 일시적·문화적·공간적 상황에 이러한 원리들의 적절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보편타당하다. 즉 어떠한 역사적 시기 또는 문화집단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 원리는 일반적이고 보편타당한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인간들의 관계에 관한 법률과 같은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즉 학생이 과

학적인 원리가 어떠한가를 학습하고 이를 그들의 개별적인 삶에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학습하는데 일련의 독특한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는 이전에 가족분야에서 규명되어 오지 않았던 방식에 일련의 교육목표(일반적 원리 학습하기, 특별한 상황에 이러한 원리 적용을 학습하기, 일상생활에 이행을 위한 기술 학습하기)를 동시에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가치 있는 공헌을 하고 있다고 본다.

#### 4. 콜버그의 도덕성발달 접근법(Kohlberg's Moral Developmental Approach)

Galbraith & Jones(1974)에 의하면, 학생과 교육자는 자아인식(self-awareness)과 가치의 명료화(clarification of values)를 강조하는 기능적 교육에 대한 요구에 점차적으로 민감해져 가고 있으므로 가족생활교육에서 이러한 과업은 내용의 특성으로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도덕성 발달 단계는 “올바른(right)” 행위를 승인하는 문제라기 보다는 개인의 선택에 대한 논리를 그 스스로 아는 문제이다. 이러한 모델은 도덕성 문제의 탐구를 위한 수단으로 제공되며, 또한 가족관계 맥락의 통합된 제안을 제공하게 될 개념들이 되고 있다. Hunt & Rydman, McCary는 시간개념분석(time frame analysis)을 대인관계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려에 앞서 개인내적 관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용하고 있다. 이 모델의 이용은 가족생활의 자료제시를 위한 개념들로서 가족생활주기 접근법(family life cycle approach)과 개인내적, 대인관계적 역동성을 연결짓고 있다. 도덕성 발달모델은 개인적 자기중심의 관심으로부터 보다 더 평가 받는 것을 향한, 그리고 보다 넓은 사회적 관계의 영역속에서 통합을 향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도덕성 발달은 “옳게 행해야 한다”식의 불합리한 믿음으로부터 인간 존재로서 합리적인 믿음에 신뢰하는 것으로 나아가간다.

가족관계 교육과정에 이러한 상호교류적인 성향의 적용은 우선 쾌락주의적 욕망(hedonistic desires)으로부터 나아가 대인관계, 부모됨, 사회참

여 등으로 전개되면서 이를 통해 획득된 기타 다른 것에 대한 책임감과 그러한 개인적 요구들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가족생활교육 내용에 Kohlberg의 도덕성 발달단계 적용을 위한 교육과정모델은 이와같이 개인내적 관심으로 부터 대인관계적, 상황적 역동성으로 전개되는 논리적 시간구조에 따라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Kohlberg의 모델 적용은 다음과 같이 행해지고 있다.

(1) 지각된 환경적 압력에 대한 개별적 반응으로부터 동등하게 모든 개별적 인간의 권리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자발적 실체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변화를 기술하기 위한 내용의 주제를 구조화한다.

(2) 학생들이 도덕적 딜레마 논의에 참여하게 한다. 즉 그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노출시키고 그러한 의견을 갖는 것 이상으로 도덕적 이성을 탐색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대안책을 확인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게 되며, 또한 대안책 가운데 선택을 위한 자신의 책임감을 인식하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그들은 성숙하게 행동하는 것의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그들 자신의 평가에 따른 선택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Kohlberg의 원리 적용은 개별적인 학생의 요구에 기능적으로 적절한, 발달론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러한 양면에 합리적인 접근법을 촉진시키고 있다.

#### 5. 평생발달적 접근법(Life-Span Developmental Approach)

Fisher(1986)는 가족생활교육에서 이론의 발전이 소홀히 다루어져 왔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이론의 결여 속에서 이 개념들을 위해 채택된 주요 영역들은 이 분야의 철학, 원리, 목적에 기초하고 있으며, 개념들을 발달시키고 전문적이며 숙련된 가족생활교육학자와 연구가들의 지식에 기초하였다. 각 영역에 나타나 있는 주요 개념들은 그 영역에서의 최근 개념상의 발달과 실증적인 지식을 반영하고 있다. Fisher & Kerckhoff(1981)에 따르면 이 접근법은, 그 분야의 최근 지식을 조직화하도록

조력함으로써, 프로그램 발달·전달·평가를 시도하도록 돕도록 하고 가족생활교육자의 훈련을 개선시킴으로써, 가족생활교육에서 이론적 모델의 발달과 검증을 촉진함으로써 가족생활교육의 실행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개념들의 발달단계를 보면,

(1) 이 개념들은 가족생활교육의 광의의 개념을 반영하도록 의도, 동시에 보다 간결,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주요 영역들의 수치를 제한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예를 들면, 인간발달과 성은 2개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 영역으로 작성, 우정과 데이팅과 결혼은 광범위한 대인관계의 주제 영역으로 통합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은 주요 개념이나 아이디어의 손실됨이 없이, 보다 조직적으로 개념들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대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이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에서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본다.

(2) 이 개념들은 학습의 모든 차원—지식·태도·기술을 포함하여 구축되었다. 학습의 이러한 여러 차원들은 각 주요 영역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각각 모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성인의 상호관계에 주요 개념들은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같은 지식,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감”과 같은 태도, “우정의 시작, 지속, 종결”과 같은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3) 이 개념들은 모든 연령의 사람이 가족생활의 많은 측면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가정을 반영하도록 고안되었다. 이러한 학습을 위한 지적, 정서적, 사회적 준비성은 특정한 연령의 사람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개념들은 아동·청소년·성인의 일반적인 연령 범주로 크게 3영역으로 나뉘어 조직되었다. 모든 가족생활교육 내용이 이 개념들에 포함될 수는 없으나, 각 영역에 주요 개념을 판별하고자 하는 시도가 주어졌다. 각 주요 영역을 위해 채택된 개념들은 이분야의 전문가의 추천에 기초하였으며, 위원회와 그 산하기관에 의해 어느 정도의 비판적인 재검토를 받았다. 이 개념들은 가족생활교육의 실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용되어 질 수 있는데, 교육자들이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내

용의 전체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관한 하나의 체계적인 수단을 제공하며, 한편으로 이는 기관, 조직, 지역사회에서 프로그램의 공급에 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이 개념들은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재검토의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생활교육자들의 훈련과 연관이 있는 이들을 위해, 학습 연구과제의 기초로도 쓰일 것이며(가족생활교육의 개발과 비평), 계속되는 교육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개념들은 가족생활교육의 기존의 정의 위에 설정되었으며, 그 분야의 본질을 명확히 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평생발달프로그램을 위한 적절한 내용의 명시, 특성화는 이 분야에서의 증대한 요구에 부합되며, 가족생활교육의 실행과 연구 모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 V. 현대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

### —부부 교육을 중심으로—

현대 한국 가족은 구조적으로는 안정성이 다소 높은 편이나 가족별거, 폭력, 혼외관계 등 심리적 해체현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자들의 연구 이외 최근 신문지상이나 사회기관, 여성단체, 상담창구 등에 나타나는 가족문제를 보면 증가하는 이혼율, 폭행, 학대, 외처, 의부증, 가출, 별거 등의 증가. 확대는 병리적 가족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유영주, 1989).

유영주(1989), 송성자(1987) 등은 가족문제 발생에 대하여 가족이 기능상에 장애가 있는 경우, 즉 가족이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경향이 많으며, 현대의 가족문제는 가족기능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가족의 건전한 유지 발전은 사회의 건전한 유지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개인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1차적 환경요인이 되는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의 가족문제가 가족기능의 변화, 약화, 축소화(고병익, 1986; 이광규, 1986;

최신덕, 1986; 유영주 1989 재인용)에서 발생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가족기능에 대한 연구는 현 시대에 있어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가족문제를 예방, 개선할 수 있도록(유영주, 1989) 돕는 가족생활교육의 우선적인 연구이다.

박영애(1989)의 연구에서 가족분야 중 80년 대 이후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본 고에서 특히 부부교육에 초점을 두고자 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선행연구의 결과들에서 기인된다. 이동원(1981)은 도시중류 가정의 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부부문제가 첫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부부, 경제, 친족관계 문제 순), 엄혜선(1988)의 연구에서도 부부문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개인주의와 평등에 대한 이념이 산업화를 동반하면서 부부중심가족을 탄생시켰는데, 이 부부중심가족은 남편과 아내의 정서적 관계에 대한 강조를 통해 현실체계에 적응된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의 부부중심가족은 이상적 의미로 보기는 어렵고 단지 구조상의 소가족화에 불과하다(이동원, 1989). 그러나, 부부중심가족은 가족의 외형적 구조는 유지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매우 약하고 질적 측면의 상호작용이 낮은 차원의 가족이 많다. 그러므로 조그만 위기에도 대응능력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 경향적 가족이 많다는 것이다(한남제, 1975; 이동원, 1968; 유영주, 1989 재인용).

가장 최근에 발표된 2가지 연구 중 우선 유영주(1989)의 실태조사에서 보면, 가족형태에 있어서는 서울의 경우 부부가족이 76.6%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도시, 농촌에서 50%을 훨씬 넘는 가족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가족기능수행도에 있어서 한국가족은 전반적으로 가족기능의 전체적 수행에 있어서는 중간정도 이상으로 비교적 잘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가족단위로 볼 때 부부가 공히 가족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가족은 불과 34%, 약 1/3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다른 조사인 한겨레 신문(90. 7. 13)에서는 1989년 6월에서 1990년 5월까지의 전화상담 1464건을 분석한 결과 부부문제가 62%로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상을 통해 볼 때, 가족생활교육 중 무엇보다도 가족의 중심이 되고 있는 부부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며 이에 초점을 두어 한 가족의 중심체계인 부부의 건전함을 지원, 부부를 통하여 가족잠재력 개발을 촉진시키므로써 전체가족을 건전하게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가족생활교육 중 부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적인 준비로써 서울시 기혼 남녀 270명(남 117명, 여 152명)을 설문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보면, 연령은 30세에서 60세, 학력은 대졸 이상이 50%, 대졸 미만이 50%로 구성되었다. 대상자들은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57.6%이며, 가족생활교육을 직접 받아 본 사람들은 61%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족생활교육 중 부부교육 프로그램에서 실제적인 교육을 받아 본 사람은 19.5%로 낮은 비율이나 소비자 교육이나 부모교육을 받아 본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도입이 안되었을 뿐 아니라 무엇이 가족의 정확한 욕구인지 파악이 미처 되지 않은 채, 외형만을 고쳐주는 교양교육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족생활교육의 실시기관으로는 종교단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은 비율이 가장 많으며, 가족생활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대학 부설기관에서의 수강 빈도는 매우 낮은편(7.8%)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족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심각한 가족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부모-자녀 관계, 가정경제문제 순이고, 부부문제에 대해서는 11%정도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이 결과는 앞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는 조금 상반된 결과이나, 이것은 가족관계 중 다른 어떤 관계 보다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부부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가부장적 사고방식 및 전통적인 유교사상에서 기인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가족생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의논상대자로는 배우자가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67.4%)로 나타났으며, 기혼 남자에 있

어서는 의논하지 않고 혼자 고민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나타났으므로 사석차원에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신뢰감 있는 상담자가 필요함이 지적될 수 있고, 기혼 여성에 있어서는 친척이 의논상대자일 경우 대부분이 친정가족원(친정어머니, 친정언니)으로 나타나 있다. 가족생활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족생활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56.9%, 평상시 가족생활 중에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67.7%로 효율적인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중 부부교육에 대한 내용에서 원하는 세부적인 것은 의사소통, 역할협력, 정신건강, 가치관·취미·종교의 차이, 애정표현, 자녀지도 방법 및 자녀지도시의 부부의 일관성 등으로 나타났다. 이미 취업부부의 가정생활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본 조사에서도 취업부부의 경우 부부 역할협력의 기술, 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의 강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형태의 부부중심가족화(핵가족화)에 따라 아내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접촉할 수 있는 가족이 친정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는데(유영주, 1989) 본 조사에서는 고부·시댁가족원들과의 갈등 만큼이나 남편과 처가집과의 관계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족문제에 있어서 가정경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의 무절제한 지출을, 남편은 아내에 대해 가계관리 운영능력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족형태에 있어서 부부중심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나 가부장적 의식과 부계적 의식이 약화된 양면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족형태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요인들에 초점을 두고 부부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요약하면, 부부의 의사소통·역할협력·애정표현에 대한 기술적인 것, 부부의 가치관·취미·종교·성격차이를 극복하는 이해·수용적인 태도의 방법, 자녀지도에 대한 지식적이고 실제적인 기술, 가정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계관리에 대한 능력 등을 부부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중심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대상은 결혼을 준비하는 연령의 미혼 남녀, 약혼 등을 통해 예비부부가 되는 남녀, 결혼한 부부에게는 가족생활주기별로 분류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가족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다른 한편에서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서는 가족단위로 볼 때, 가족기능 수행상에 문제점이 있음을 보이고 있으므로 가족기능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가족단위로서의 교육이 필요함(유영주, 1989)을 알 수 있다.

## VI. 결론 및 제언

오늘날의 가족은 그 기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조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가족생활교육은 이러한 조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Cromwell & Thomas, 1976). 가족생활교육은 과거에 받은 경험이 있을지라도, 가족의 욕구, 다양한 목표, 철학, 배경, 재정자원 등에 대한 환경적 조건의 변화로 인하여 가족생활의 내용 상황등이 항상 변화되므로 다양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기초로 하여 가족생활교육을 위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자 할 때, 그것 자체가 건강한 가족을 위한 것으로 당연히 귀결이 되며, 가족 향상(family enrichment) 내지는 가족의 잠재력(family potential)을 최대한 구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건강하고 건전한 가족, 가족향상, 가족잠재력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통한 문헌적 결론을 유추해 보고, 한국 가족에 있어서의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중 부부교육의 실행을 위한 기초적인 준비사항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 1. 가족생활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족의 개념

#### 1) 건강하고 건전한 가족(Strong Family)

건전한 가족의 개념은 최근 연구의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 건전한 가족 특징에 근거하여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발달시킬 수

있다. Stinnett, Sanders, DeFrain의 건전가족에 대한 몇 개의 지속되어 온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들(Stinnett 등)의 여러 연구에서 가족의 건전성(strengths)의 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종합해 보면, 사랑, 존경, 개성존중, 이해, 칭찬/인정, ego 설정/지지, 진실,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 기꺼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활동에 참여, 좋은 의사소통 유형,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가족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조사(stinnett등)에서 중요한 발견은 칭찬과 감사의 표시로써 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는 좋은 관계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이를 가족생활교육에 포함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요구되나, 현실적으로 가정교과서에서 크게 무시되어 왔다.

건전가족의 대부분은 남편-아내와 부모-자녀 관계와의 친밀성과 행복을 높게 또는 매우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건전한 가족의 부모들은 그들 자녀들에게 감사의 표현,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기, 그들의 활동에 참여, 그들 흥미의 건전한 표현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Otto(1962)의 연구에서는 사랑과 종교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발견되었고, Stinnett(1979) & Beam(1979)의 연구 결과 역시 유사했으며, Casas(1979)의 연구도 사랑, 이해, 부부간의 존경, 가족단란, 종교 등으로 나타났다. Zimmerman(1972)은 건강한 가족은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위기가 생기기 전에 예방책으로 방지해야 하며, 가족생활교육에 아동 학대의 보호, 청소년 비행, 강간, 원하지 않은 임신, 다른 사회의 위험한 영역과 개인적 문제들을 첨가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Stinnett 등) 건전한 가족의 구성요소로 11가지를 들고 있다. ① 가족구성원의 신체적·감정적·정서적 욕구를 제공, ② 가족구성원의 여타 욕구를 수용, ③ 원활한 의사소통, ④ 지지·안전·격려를 제공, ⑤ growth-producing 관계를 유지, ⑥ 유지·창조·공동체 상호작용의 책임, ⑦ 자녀를 통해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능력, ⑧ 자립의 능력과 적합할 때 도움을 받아 들이는 능력, ⑨ 가족 역할을 융통성 있게 수행하는 능력, ⑩ 가족구성원의 개성을 위한 부부간의 존중, ⑪

가족과 관련된 고유성·충성·가족들간의 협동 등이다.

이들 연구에서 유추해 보면, 사람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서 나아가 개인의 연구, 자아 성취에 대한 연구로 연결되어 가족생활의 질이 정서적 복지감, 행복, 정신적 건강, 도덕성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 2) 가족향상(Family Enrichment)

가족향상프로그램은 그들 가족이 잘 기능한다고 믿는 사람과, 가족생활이 앞으로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가족의 건전성을 강화시켜 주고, 개개인과 가족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가족 의사소통과 정서적 생활을 고양시키는데 관심을 가졌다. 결혼과 가족향상(Marriage & Family Enrichment) 프로그램의 주요 관심은, 그 부부의 관계로서 개개인의 그리고 두 사람의 잠재성의 개발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유형의 가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가족의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수정하는데 더욱 강조를 하고 있다. L'Abate(1978)에 의하면, 향상의 목적이 정상인의 긍정적이고 건전한 면과 개인의 잠재력을 촉진시키고, 예방하는 방법에 있다고 언급했다. 향상에 관한 추세는 어느 정도는 가족생활교육에 의존하여 왔으나 보다 많은 기반이 윤리학, 가족사회학, 인간의 성적인 면, 갈등해결, 인본주의 심리학, 소그룹의 역동성, 정서적 교육, 인간의 잠재성 가설 등에서 형성되었다(Otto, 1976).

## 3) 가족 잠재력 개발(Family Potential)

인간의 잠재력과 가족성장을 강조하는 가족생활교육으로 부터 기초이론과 철학을 확장시키고, 가족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원개발에 대한 계획된 가족행동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지역사회에 이러한 사추(idea)의 적용을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치료적인 성격 보다는 예방적이고 교육적인 것이며, 가족생활교육이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잠재력 개발을 촉진시키는데 필수적인 Delivery system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정한다. Otto(1971)는 건전한 인간은



자신의 잠재력의 아주 적은 부분으로 기능한다고 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한 그룹에 있어서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데 대한 관심 및 행동 노력들이 상당히 증가되었으나, 가족그룹 내 인간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또는 개개인과 그 체계의 하부단위를 포함한 가족체계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했다. Anderson(1974)의 가족잠재력 정의를 보면, 가족잠재력은 변화와 성장, 사랑과 돌봄, 커뮤니케이션, 갈등해결, 모험을 감행, 즐거움을 경험하는 등의 모든 가족내 잠재된 자원들로 이해될 수 있다. 문제성 보다는 성장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는 가족성장그룹은 가족 특유의 건전성과 자원에 대한 그들 자신의 지각을 증진시키고, 가족생활에 잠재된 능력을 실현하도록 하는 기회를 가족에게 제공하고 있다.

가족성원을 위한 가족체계의 교육적인 잠재력이 대부분 무시되어 왔는데, 초기 아동기 교육과 아동발달에 가족의 역할에 관한 견해는 가족원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가족중심의 아동 보호 및 교육적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요지는 그룹내 성원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데 가족의 중요성이 재평가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있다. 가족성원의 사회화에 있어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관념이 가족과 아동발달 문헌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아 온 반면에,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는 가족의 건전성 및 잠재력에 관련된 이슈를 무시하여 왔다. 이는 그러한 개별적 노력들이 가족 상호작용을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을 학습함으로써, 또 가족 변화 및 개발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킴으로써 함양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가족발달을 양성하고 “촉진하는” 또는 “예방적인” 연속적 교육모델이 가족 잠재력을 극대화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직면하고 있다.

## 2. 가족생활교육에서 부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가족은 이 사회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사회기관으로 남아 있다. 또한 가족은 기능의 지

속을 위한 다수다종의 유형의 원조를 점증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효과적인 가족관계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가족단위의 성원들에 의한 계획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또한 한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부부관계의 건전성은 바람직한 가족관계의 기본조건이며, 동시에 부부관계는 부모자녀관계와 그의 가족관계의 기본이 되므로 부부관계가 행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모로서도 효과적인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정애량, 1987). 더욱이 현대의 가족이란 개인성과 자아정체감을 무시한 부부관계는 유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적 유대감이 결여된 가족 또한 문제가족으로 전락되기 쉽다(유영주, 1989). 부부문제에 급격한 대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해결보다는 부부 및 가족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교육이 실시되어야함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에서는 이미 1900년 경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가족생활교육이 학교의 정규교육에서 뿐 아니라 성인교육의 특수형태로도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1983년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을 갖게 되어 사회교육법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평생교육차원에서 시작되어 왔으나, 현재는 실시기관이나 실시자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가족생활교육의 운영이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족생활교육의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하고, 사회 변화 추세에 따른 부부중심 가족의 형성에서 나타나는 부부문제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한국적인 특수성에 맞춘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대의 부부는 외형적으로는 근대적 부부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아직도 전근대적-가부장적, 수직구조, 부자중심 등-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유영주, 1989)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이었던 서울시 기혼 남녀들이 가족생활을 영위해 오면서 가족 생활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특히 부부문제에 있어서의 교육 내용을 의사소통, 역할협력,

부부간의 정신건강, 성격차이, 취미·종교·가치관의 차이, 애정표현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전문적·기술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원하고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것은 본조사에서 뿐 아니라 유영주(1989)의 연구에서도 부부간의 의사소통 기술, 가계관리방법, 자녀학습지도 방법 및 가족단위로서의 가족기능 수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그러므로 현대의 부부문제 나아가 가족문제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유영주, 1989).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부부관계 및 가족의식에서 벗어나 가족생활교육의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부생활 내지 가족생활에 관련된 개념, 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부부 각자의 혹은 가족구성원 각자의 개인적인 태도(역할), 가치를 개발하고 타인의 가치와 태도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서는 가족의 복지에 기여하는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의 기술적인 것을 연마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부부의 변화하는 욕구충족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예방하여 가족기능, 가족생활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향상을 도모하여 건전가족 구현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 3. 제 언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전개시 아직은 연구가 미흡한 단계이므로 내용과 방법이 혼돈되어 있고, 스스로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탐구케 하는 자율학습이 중요시 되며, 학습자의 발표나 참여가 극대화되고 상호학습이 알맞으며, 지식의 전달 보다는 감정의 소통(김혜석, 1990)이 중요하다.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실시시 참여자의 연령, 성별, 직업, 교육경력, 거주지역, 가족생활주기, 성취목표, 포부, 사회-심리-신체적 특성(이상원, 1986), 가족구성원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환경 등을 실질적이며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들의 교육적 요구를 조사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앞으로의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결혼과 결혼준비, 의사소통, 가치, 청소년 임신, 가족위기, 가족계획, 대인관계, 가계관리방법, 자녀지도기술

등을 포함하여 변화하는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심사를 구체화시켜 실행해야 한다.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실시되고 있는 많은 교육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계층간의 교육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또한 사회갈등의 해소나 참된 인간성의 회복이란 차원에서 교육이 결여(권두승, 1987)되고 있는 바를 가족생활교육자는 주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가족생활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정부가 깨닫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는 가족생활교육이 가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영역임을 인식하는 것, 그에 따른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제공·교육과정·개발·수행·평가에 대한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 가족생활교육자 훈련 등을 설명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프로그램에서의 예산 삭감의 경향이 있지만 예방적 모델로서의 실제 교육은 치료에 드는 비용 보다 적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에 내재된 목표는 태도의 변화와 행동의 수정이다. 가족연구, 가족생활교육, 가족생활교육 평가가 연결되어 가족생활교육의 현실적 프로그램에 대해 단계적 연구 및 나아가 현대 한국 가족생활에서의 건전가족의 모델 설정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 1) 권두승 (1987). 한국사회교육의 실태에 대한 사회학적 유형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 길광숙 (1984). 한국여성 사회교육관에 관한 분석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 김관희 (1989).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문화교실 형태의 사회교육 요구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4) 김미옥 (1984). 결혼전후 성인의 유아기 자녀양육 태도에 관한 일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5) 김재인 (1987). 후기성인을 위한 사회교육과 생활만족도 상관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사학위 논문
- 6) 김형배 (1984). 핵가족화에 따른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 - 서울 시내 고교생 가정을 중심으로 - 석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7) 김혜석 (1990). 결혼준비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8) 박영애 (1989). 가정학적 아동 가정학의 문제와 전망. 대한가정학회지 27(4) : 250-251.
  - 9) 송성자 (1987). 가족관계와 가족치료. 서울 : 홍익재.
  - 10) 엄혜선 (1988). 한국가족과 가족치료 - 한국도시 중산층을 위한 정신치료 모형의 구상 -. 사회복지학 12 : 한국사회복지학회 93-115.
  - 11) 유영주 (1983). 가족관계학. 서울 : 교문사.
  - 12) 유영주 (1989). 사회변천과 가정 - 현대사회와 가정 -. 1989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대한가정학회지 27(2) : 212-216.
  - 13) 유영주 (1989). 한국가족의 대내적 기능 연구 - 가족의 기능요인 및 수행도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4) 윤진 (1983).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심리학적 접근 : 부모와 자녀 및 노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연세대학교 : 83-97.
  - 15) 이동원 (1981). 도시가족연구 I : 결혼에 관한 태도의 비교 1958-1980.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39 : 이화여자대학교.
  - 16) 이동원 (1986). 사회변천과 가정 - 현대사회와 가정 -. 1989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대한가정학회지 27(2) : 201-207.
  - 17) 이상원 (1986). 도시 중년여성의 성인교육 요구 분석 및 그 내용개선을 위한 일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8) 이영미 (1989). 조선조 여성의 가정교육에 대한 현대적 재조명 - 규범류에 나타난 여성교육을 중심으로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9) 조경애 (1988).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자녀의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 차경수 (1986). 가정교육(I) - 한국가정교육의 방향과 과제 -. 현대사회와 가족.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223-235.
  - 21) 최운실 (1986). 성인교육유형에 따른 교육참여 특성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2) 최진복 (1988). 가정생활 내용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3) 한국여성개발원 (1990). 영세지역 가족관계 및 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연구.
- 외국 문헌
- 1) Arcus, M. (1987). A framework for life-span family education : *Family Relations* 36(1) : 5-10.
  - 2) Arcus, M. (1990). Family life education curriculum guidelines :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 3) Avery, C.E. and Lee, M.R. (1964). Family life education : Its philosophy and purpose : *The Family Coordinator* 13(1) : 27-37.
  - 4) Bakalars, R. and Petrich, B. (1984). Family life education in elementary grades : Who teaches What ? : *Family Relations* 33(4) : 531-536.
  - 5) Burr, W.R., Jensen, M.R., and Brady, L.G. (1977). A principles approach in family life education : *The Family Coordinator* 26(3) : 225-234.
  - 6) Cromwell, R.E., and Thomas, V.L. (1976). "Developing resources for family potential : A family action model : *The Family Coordinator* 25(1) : 13-20.
  - 7) Darling, C.A. (1987). Family life education :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 Marvin B. Sussman and Suzanne K. Steinmetz, Penum press, N.Y. : 815-833.
  - 8) De Vries, B., Birren J.E., Deutchman D.E. (1990) : Adult development through guided autobiography : The family context : *Family Relations* 39(1) : 3-7.
  - 9) Duvall, E.M. (1988). Family development's first forty years : *Family Relations* 37(2) : 127-134.
  - 10) Englund, C.L. (1980). Using Kohoberg's moral developmental framework in Family life education : *Family Relations* 29(1) : 7-13.
  - 11) Fisher, B.L. and Kerckhoff, R.K. (1981). Family life education : Generating cohesion out of chaos : *Family Relations* 30(4) : 505-509.
  - 12) Glick, P.C. (1989). The family life cycle and social change : *Family Relations* 38(2) : 123-129.
  - 13) Gaylin, N.L. (1981). Family life education : Behavioral sciences wonder bread ? : *Family Relations*

- lions 30(4) : 511-516.
- 14) Harriman, L.C. (1986). Teaching traditional vs. emerging concepts in family life education : *Family Relations* 35(4) : 581-586.
  - 15) Hynson, L.C. (1979). A systems approach to community family education : *The Family Coordinator* 28(3) : 383-387.
  - 16) Kennedy, C.E., and Southwick, J. (1975). Inservice program for family life educators : cooperative program with mental health centers and university : *The Family Coordinator* 24(2) : 193-198.
  - 17) Larry Hof, M.Div., Miller, W.R. (1981). Marriage enrichment : Philosophy, process, and program, Prentice-Hall International, Inc., London.
  - 18) L'Abate L. & O'Callaghan J.B. (1977). Implications of the enrichment model for research and training : *The Family Coordinator* 26(1) : 61-64.
  - 19) Larson, J.H. (1988). Family life education : The marriage quiz : college student's beliefs in selected myths about marriage : *Family Relations* 37 (1) : 3-9.
  - 20) Levin, E. (1975). Development of a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in a community social service agency : *The Family Coordinator* 24(3) : 343-349.
  - 21) Luckey, E.B. (1978). In my opinion : Family life education revisited : *The Family Coordinator* 27 (1) : 69-73.
  - 22) Mace, D. (1979). Marriage and family enrichment-a new field? : *The Family Coordinator* 28(1)409-419.
  - 23) Mason, R.L. (1974). Family life education in the high schools of Dentucky : *The Family Coordinator* 23(2) : 197-200.
  - 24) Olson, T.D., and Moss, J.J. (1980). Creating supportive atmospheres in family life education", *Family Relations* 29(3) : 391-345.
  - 25) Otto, H.A. (1962). What is a strong family? : *Marriage and Family Living* 24 : 77-80.
  - 26) Stinnett, N., Sanders, G., DeFrain, J., and Parkhurst, A. (1982). A nationwide study of families who perceive themselves as strong : *The Family Perspectives* 16 : 15-22.
  - 27) Stinnett, N., Sanders, G., and DeFrain J. ( ). Strong families : a national studya : *Family Strengths* III : 33-41.
  - 28) Sullivan, J., Gryzlo, B., and Schwarz, W. (1978). Certification of family Llife Educators : a status report of state departments of education : *The Family Coordinator* 27(3) : 269-272.
  - 29) Wright, L. and L'Abate L. (1977). Four approaches to family Facilitation : Some Issues and Implications : *The Family Coordinator* 26(2) : 176-181.